

“하루 10시간 연습, 상임단원 오디션 매진”

2018 주목! 이 사람

〈8〉광주시립발레단 루마니아 출신 보그단

12살때 부모님 권유로 발레 시작

출연한 작품만 1000여편 넘어

2016년부터 시립발레단 활동

치열한 연습벌레...한국이름 ‘복단’

“발레마스터로 후배 양성이 꿈”



그는 외국인 발레리노를 거의 접할 기회가 없었던 지역 관객들에게 관능적이고 카리스마 넘치는 연기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 후 광주시립발레단의 5대 예술감독 신순주 감독의 제안으로 비상임단원이 됐고 지금까지 시립발레단원으로 근무하며 ‘돈키호테’ 등 다양한 작품의 주연을 맡았다. 또 지난해 시립발레단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협업한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주인공 로미오와 친구 머큐쇼 역을 번갈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다.

광주에서 ‘복단’이라는 한국이름을 얻으며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는 연습벌레로 소문이 자자하다.

“공연이 없을 때는 하루평균 6시간 정도 연습해요. 작품 일정이 잡히고 나면 10시간씩 연습할 때도 많죠. 항상 마지막까지 연습하느라 연습실 불을 끄는 건 저예요.”

보그단은 “항상 혼자 연습할 때면 조금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며 “그럴 때마다 발레가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더 힘을 낸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5월 중 있을 시립발레단의 공연 ‘백조의 호수’와 갈라쇼를 준비중이다. 또, 2월 중 있을 상임단원 채용 오디션에 도전하고 있다.

“지금은 오디션이 가장 중요해요. 상임단원 주역단원으로서 활동하며 많은 배역을 소화해내고 싶어요.”

그는 나이가 들면 지도자 과정을 통해 발레마스터가 돼 광주에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며 활동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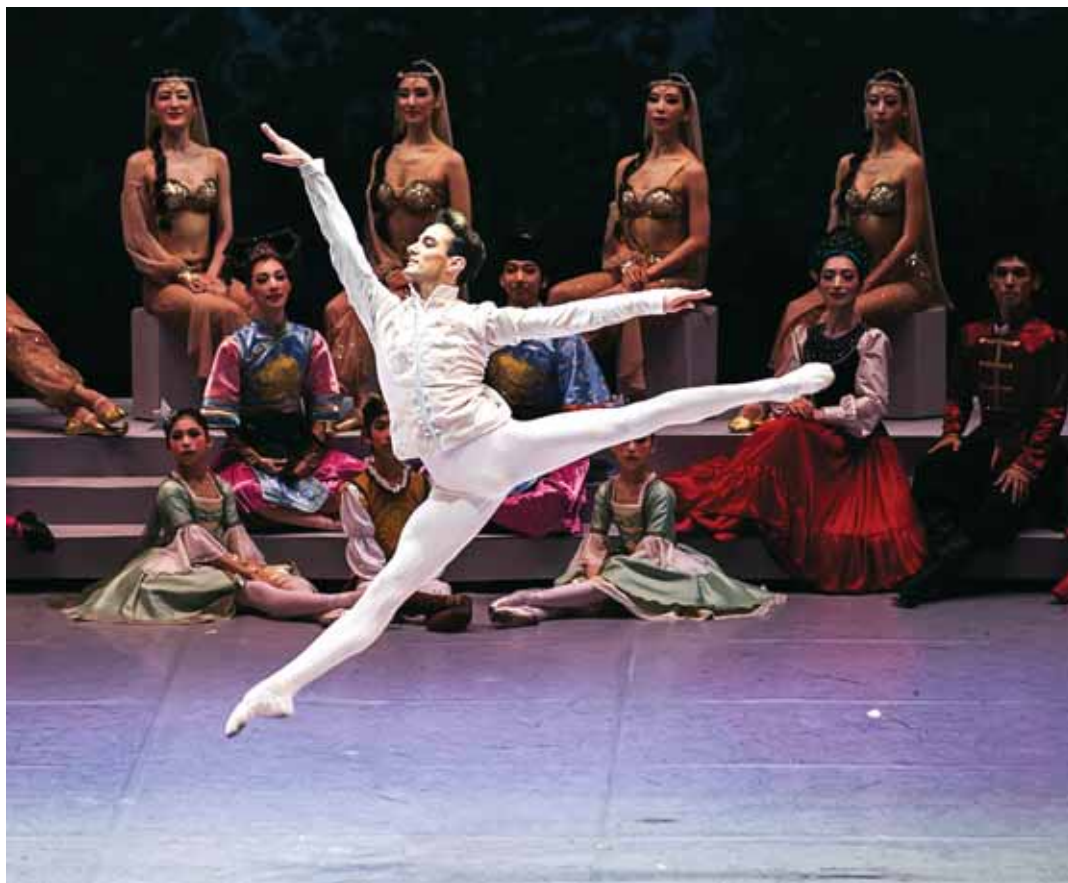
“발레리노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간은 매우 짧아요. 사실 언제 부상을 입을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다쳐도 주역에서 빠지게 될까봐 감독한테 말을 안 한 적도 있어요. 항상 위험 속에서 춤을 추지만 알아주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오랫동안 무대에 오르고 싶습니다.”

／글·사진=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주시립발레단과의 인연을 맺게 됐다. 플로린은 광주에서 시립단원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한국 유니버설 발레단에서 활동하던 중 만난 플로린 선생님이 어느 날 ‘광주시립발레단의 무대에 올라보지 않겠느냐’는 말을 해왔어요. 그래서 시립발레단의 ‘카르멘’에 출연했죠.”

당시 ‘카르멘’의 남자 주인공 돈 호세역을 맡았던



광주시립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에서 주역을 맡은 보그단 플로피뉴의 공연 모습. 〈광주시립발레단 제공〉

미디어338 신년 기획전 ‘디지털 문’

26일~2월 20일

이경호 작가

2월 23일~

3월 10일

정선휘 작가

▶이경호 작 ‘잭팟’



“2018년 보름달 기운 받아 잭팟! 나세요.”

광주문화재단 미디어아트 전시공간 미디어338에서 올해 첫 전시를 개최한다. 오는 26일부터 진행되는 신년 기획전시 ‘디지털 문(Digital Moon)’ 릴레이 전시전은 한 해 중 가장 빛나는 달인 1월의 달처럼 시민들의 한 해가 빛나길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

이번 ‘디지털 문’ 릴레이 전시전은 2화로 나눠 진행된다. 1회 전시는 26일부터 2월 20일까지 이경호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고 2회 전시는 2월 23일부터 3월 10일까지 정선휘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다.

1회 전시는 서울을 중심으로 활발한 전시활동을 펼치고 있는 미디어아티스트 이경호 작가가

관객들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인터랙션 작품을 선보인다. 작품명 ‘디지털문’은 관객의 움직임에 따라 변화되는 달을 직접 만지고 변형시킬 수 있으며, 관객들은 소망을 담은 새로운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또 다른 작품 ‘Jackpot!(잭팟!)’은 ‘대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Jackpot!’은 표면적으로는 감성적 메시지를 전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이러니한 인간욕망에 대한 비판적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작품이 전시되는 기간 중에는 빛고을시민문화관 옥상 홀로그램파사드에서 ‘보름달’ 모양의 대형 미디어파사드 달을 볼 수 있어 마치 달이 하늘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62-670-7491~4. /박성천기자 skypark@

서미라 작가

미국 초대전

7월 20일까지

뉴욕 맨하튼서



▶‘무국’

서양화가 서미라 작가가 미국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비영리 미술인 지원단체 알재단(AHL Foundation)에서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20일부터 오는 7월 20일까지 뱅크 오브 호프(Bank of Hope) 맨하튼 지점에서 열린다.

‘Sensitivity’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2010년 이후부터 최근작을 중심으로 2m가 넘는 대작을 포함해 12여점의 작품이 선보인다.

20여년간 작업하며 인간의 삶과 자연에 대한 성찰을 화폭에 담아온 서 작가의 트레이드 마크는 ‘매화’다. 작가는 지조 등을 상징하는 전통적인 매화의 이미지를 삶과 연결해 강한 생명, 삶의 질곡을 담아내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이번 전시 대표작인 ‘무국’은 고목에 매화꽃을

이 화사하게 피는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작가는 하늘 향해 곳곳하게 올라가는 한 줄기의 가치를 통해 연약한 매화꽃이 개화하는 장면을, 무한한 삶을 의미하는 ‘무국’이라는 제목으로 표현했다.

광주 출신으로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한 서 작가는 동 대학원에서 ‘80년대 민족 미술운동에 있어서의 현실주의에 관한 연구’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매화꽃에 숨다’, ‘강을사유하다’, ‘북경 일기’ 등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1990년부터 98년까지 광주전남미술인공동체 ‘오월’ 거리전, 동학농민혁명100주년 기념전 등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제13회 신세계미술제 대상, 제12회 광주문화예술상 오지호미술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도 변함없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겨운 만남은 품격있는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광주 **맛집** since 1981 36년을 고객과 함께 지킴

1등 맛집 연속 선정 광주의 대표 맛집

광주 금수장호텔
GEUMSUJANG HOTEL